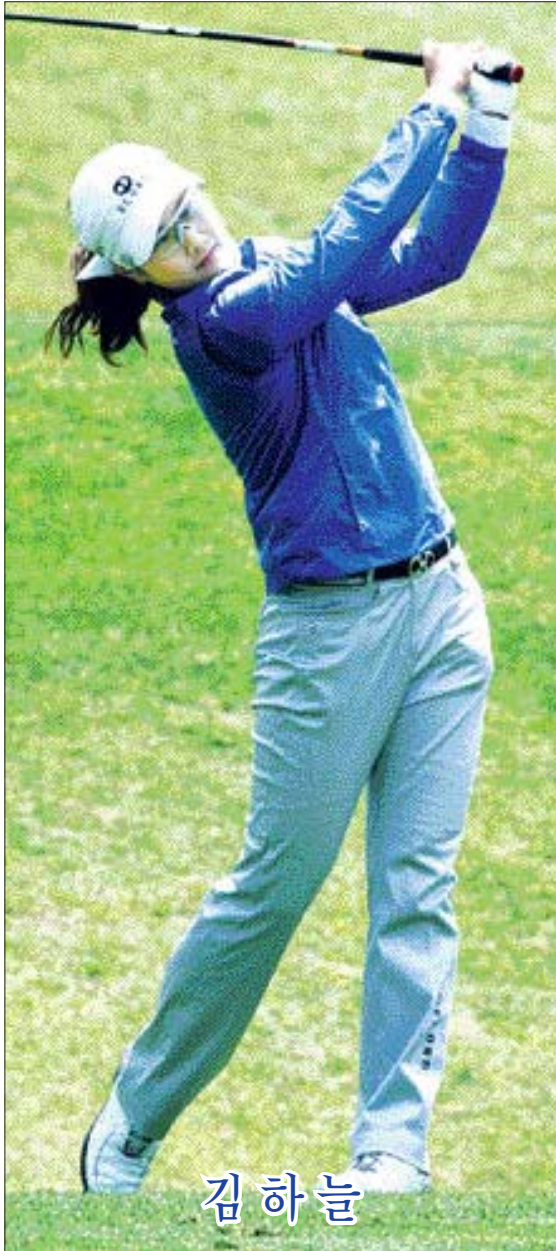


KLPGA KB 스타투어 내일 개막

‘지존’ 빈 자리 내가 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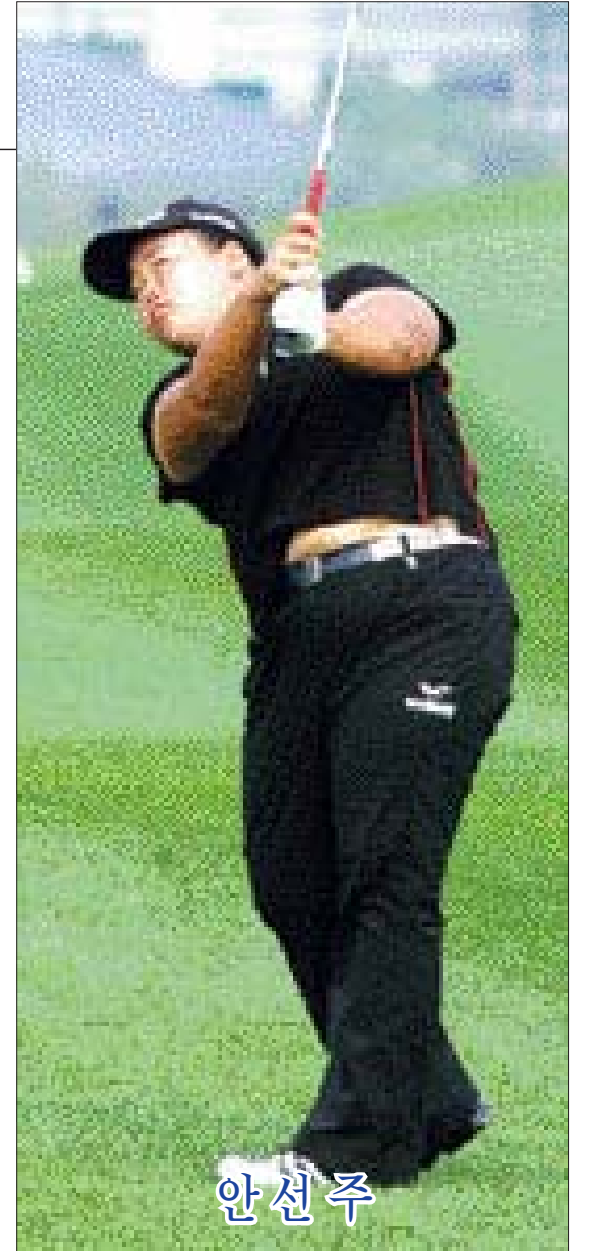
김하늘

‘지존’ 신지애의 빈자리를 우리들이 차지한다.
9일~11일까지 합평 다이내스티 골프장(과72·6천270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시즌 개막전인 1차대회에 올 시즌 2등을 올리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의 빈자리를 노리고 특급 루키들과 프로 2~3년차 선수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신지애는 8일부터 도쿄 요미우리골프장(과72·6천523야드)에서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는 불참한다.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인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유소연(18·하이마트), 김혜윤(19·하이마트), 최혜용(18·LIG) 등 신인 3인방의 우승다툼이다.
지난 2005~2006년 국가대표를 지내며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단체 금메달을 따낸 유소연은 지난 해 10월 프로로 전향해 무서운 신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인왕 점수에서도 국내 개막전 스포츠서울-김영

신지애 日투어 참가로 출전 못해
김하늘·안선주 서로 우승 자신
유소연·김혜윤 등 신인도 가세

주골프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안은 유소연이 23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김혜윤이 234점, 최혜용이 208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어 우승으로 150점을 얻을 경우 순위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어 이들 신인들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최혜용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단체 금, 개인 동메달을 따낸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 이들이 합평다이내스티CC에서 벌이는 대결은 갤러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즌 초반 신인들의 돌풍이 거세지만 2~3년차 선

수들도 이제 우승의 신포탄을 쏠 때가 됐다.
3년차 안선주(21·하이마트)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이 대회를 모두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해 유난히 인연이 깊다.
특히 신지애와 같은 팀 소속인 안선주는 이 대회 개막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0’ 순위로 꼽히고 있다.
2년차 김하늘(20·코오롱)도 지난 주 휘닉스파크 클래식 우승의 여세를 몰아 상금 랭킹 1위 신지애와의 격차를 좁힐 절호의 기회를 잡아 선전이 기대된다.
김하늘은 올 시즌 네차례 대회에서 세차례 톱10에 진입하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2007년 스타투어 5차대회 우승자인 조영란(하이마트)도 다크호스를 꼽히고 있으며 홍란(22·이수건설)등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우승상금 3천600만원을 포함해 총상금 2억원이 걸려 있으며 전 경기를 Xports, KBS N 스포츠, J-Golf에서 생중계(오후 1시~4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선주

목포여고 ‘하키 여왕’

성주여고 2-0 꺾고 우승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

목포여고가 제27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여자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해 이 대회 우승팀 목포여고는 7일 경북 성주군 성주국제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고부 결승에서 성주여고를 2-0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목포여고는 이날 전반 24분과 29분에 두 골을 넣은 권성경의 활약에 힘입어 가볍게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윤지선(목포여고)이 최우수선수에게 뽑혔고 이혜림이 우수선수가 됐다. 5골을 넣은 김혜숙(이상 성주여고)이 득점왕에 올랐고 목포여고 김철 감독과 양지현 코치가 각각 감독상과 지도상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올림픽 2연패’ 꿈 좌절

유도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왕기춘 73kg급 ‘태극 마크’

왕기춘(20·용인대)이 한국 유도의 ‘황금 체급’으로 불리는 남자 73kg급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
왕기춘은 7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전국남녀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 겸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김원중(19·용인대)을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차 선발전까지 선발 포인트 48점으로 1위에 올라있던 왕기춘은 최종선발전 우승 점수 30점을 보태 사실상 베이징 행 티켓을 예약했다. 대한유도회는 8일 경기가 다 끝난 뒤 체급별 올림픽대표 선수들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점수에서 크게 앞선다며 최종선발전 우승을 차지한 왕기

춘의 선발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1회전에서 방귀만(25·한국마사회)과 접전 끝에 판정으로 이겨 한승을 돌린 왕기춘은 2회전에서 서동규(24·포항시청)를 꺾은 뒤 승자 결승에서 이원희(27·한국마사회)와 맞섰다. 경기 시작 18초만에 이원희에 업어치기를 허용한 왕기춘은 그러나 앞으로 떨어지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결국 득점없이 연장에 들어가 왕기춘은 경기 종료 2분06초를 남기고 다리잡아메치기 유효를 따내 승자 결승에 올랐다.
패자 결승에서 이원희를 꺾고 올라온 김원중과 만난 왕기춘은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 유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속 우승 도전 기회를 날린 이원희는 패자 결승에서 김원중에게 지도 2개를 받고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는 효과까지 내렸다. 이원희 어머니는 경기가 끝난 뒤 거세게 항의하며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원희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이병규 2군 안보낸다”
日 스포니치 보도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가 타격 부진에 빠진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를 2군에 내려보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가 7일 전했다.
오치아이 히로미쓰 주니치 감독은 전날 히로시마전에서 1루수 겸 4번 타이론 우즈

와 7번 우익수 이병규가 각각 5타수 무안타 침묵에 빠지는 바람에 주자를 불러들이지 못해 1-1로 비긴 것을 두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관문에서 안타가 멈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타자 교체에 대해 “바뀔 선수가 없다. (우즈와 이병규)안타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치아이 감독의 이 언급은 두 선수의 타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동안 더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제47회 전국체급별 남녀 유도선수권 대회’ 남자 -73kg 최종 결승. 왕기춘(파란도복·용인대)이 패자 결승에서 이원희(한국마사회)를 꺾고 올라온 김원중(용인대)에게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베이징올림픽 행을 확정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강다나 첫 우승

KLPGA 강산배 드림투어 2차전

강다나(18·대전체고)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강산배 드림투어 2차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강다나는 7일 강원도 원주 센추리21골프장(과72·6천15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2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2연타 142타로 문신혜(24·연타 143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첫날 공동 선두로 나섰던 국가대표 출신 장수화(19·슈페리어)는 마지막 날 3타를 잃어 최종합계 1오버파 145타로 이보미(20·슈페리어), 안신애(18·남해해성고3)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그쳤다.

페더러·로딕 16강행

ATP 인터내셔널 BNL

로저 페더러(27·스위스)와 앤디 로딕(26·미국)이 남자프로테니스(ATP) 마스터스 시리즈 인터내셔널 BNL 이탈리아(총상금 227만유로) 단식 16강에 진출했다.
세계 1위 페더러는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단식 2회전에서 기에르모 카나스(30위·아르헨티나)를 2-0(6-3 6-3)으로 완파했다.
지난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를 쉬었던 페더러는 이보 카를로비치(22위·크로아티아)-포티토 스타라세(45위·이탈리아) 전승자와 8강행을 다룬다.
올 시즌 처음으로 클레이코트 대회에 출전한 로딕도 마디 피쉬(38위·미국)를 2-0(6-1 6-4)으로 제치고 16강에 이름을 올렸다.

배구연맹 김혁규 총재 사의

한국배구연맹(KOVO) 김혁규(69) 총재가 물러난다.
김 총재는 7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연맹 대회회의실에서 공식인 한국전력 단장을 제외한 남녀부 9개 팀 단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열린 제4기 5차 이사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김 총재의 뜻을 받아들여 남녀부 4개 구단 구단장으로 총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총재 선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적임자를 골라낸 뒤 이사회를 소집, 추천 동의 절차를 밟은 뒤 6월 정기총회에서 차기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